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췌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97/ 12/ 21 신발공장 불**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신발밀창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 등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

전기 시설이 낡고,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

**97/ 12/ 22 카센터에서 폭발**

18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일카센터에서 도색용 스프레이통이 폭발, 1명 사망.

용접불통이 폐오일에 옮겨붙어 불이 나면서 스프레이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

**97/ 12/ 24 섬유공장 화재**

22시경 경기 수원시 대림섬유 공장에서 불, 공장밀집지대인데다 섬유제품이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로 진화가 어려워 2시간 30여분만에 진화.

공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97/ 12/ 24 다방에 불**

23시경 경기 안양시 다방에서 불이 나 2명 질식사. 잠겨 있는 출입문과 바닥에 석유를 뿌린 흔적으로 미루어 사망자들이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

**97/ 12/ 26 유조선 폭발**

9시 55분경 울산 유공 2부두 앞 해상에서 우진호가 폭발, 4명 부상.

등유를 싣던 중 폭발했다는 말에 따라 전기 스파크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

**97/ 12/ 28 유리가게 불**

2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한양유리에서 불이 나 옆가게로 번져 2시간여만에 진화.

사람이 없었고 가게 뒷편 보일러가 심하게 탄 것으로 미루어 보일러 과열로 인한 불로 추정.

**97/ 12/ 30 건자재 상가 불**

0시 40분경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건자재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4개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

시너통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폭음에 놀라 대피소동.

골목길 폐지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취객이 버린 담배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

**97/ 12/ 30 사무실에서 불**

22시 43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주)동남엘리베이터 자재과 사무실에서 불이 나 직원 1명 사망.

사망자가 술을 마시고 가스 난로를 켜놓고 잠을 자다 난로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97/ 12/ 31 차량 히터과열 화재**

0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모델하우스 앞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히터과열로 불이 나 1명 화상.

**97/ 12/ 31 문경 김용사에 불**

0시경 경북 문경시 운달산 김용사 설선당에서 스님이 장작불을 지피다 불이 나 2층 강당건물과 3층 누각 등을 태우고 2시 20분경 진화.

**98/ 01/ 01 나이트클럽 화재**

22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2동 유나이티트킹덤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1,2층 300여평을 태우고 45분만에 진화. 소방관 1명 연기질식.

전기누전으로 인한 불로 추정.

**98/ 01/ 03 중국 호텔화재**

2시경 중국 길림성 통화시 동추호텔에서 불이 나 23명 사망, 14명 부상.

6F 건물의 1F에서 경비원이 켜놓은 전기난로의 불길에 담요에 붙어 발생, 상당수가 비상구의 위치를 몰라 연기에 질식사.

**98/ 01/ 03 홍성버스터미널 화재**

5시 50분경 충남 홍성군 충남교통(주)버스터

미널에서 불이 나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

관리사무실에서 숙직근무를 위해 켜놓은 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

#### 98/ 01/ 05 현대자동차 화재

0시 40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내 송용1공장 의장보전실에서 불이 나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만에 진화.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추정.

#### 98/ 01/ 14 알루미늄공장 화재

0시 49분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 조일알루미늄 제2공장 재단라인 기계하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2명 화상.

작업중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 등이 파손되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작업유가 기화된 상태에서 전기 또는 고열기로부터 점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

#### 98/ 01/ 14 새벽 섬유공장에서 불

2시 15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직원 2명 질식사, 1명 중화상.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 조사중.

#### 98/ 01/ 15 인부합숙소 화재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환호사가 인부합숙소에서 난로에 석유를 넣다 불이 나 3명 사망.

#### 98/ 01/ 16 술집 여종업원 살해 방화

의정부시 고산동 셋방에서 미군이 술집 여종업원과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뒤 침대에 방화.

#### 98/ 01/ 22 음향기기공장 화재

2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스피커내장재 생산업체 한국원음(주)에서 불이 나 외국인노동자 1명 부상, 50여분만에 진화.

야간작업중 기계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주변 스폰지에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전선과열로 인한 불로 추정.

#### 98/ 01/ 23 가정집 LPG가스 폭발

9시 50분경 서울 중랑구 묵2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셋방 부엌에서 LPG가스가 폭발, 5명 중경상.

이 사고로 다세대주택건물과 차량 2대가 파괴되고 인근 건물 유리창 수십장이 파손.

가스호스가 예리하게 절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세입자의 자살기도로 추정.

#### 98/ 01/ 24 화물센터서 불

14시 4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한통운 화물센터 2층에서 불이 나 각종 발송물 150여 상자를 태우고 20분만에 진화.

전기시설이 낡아 누전으로 인한 불로 추정.

#### 98/ 01/ 26 가정집 LPG 폭발

1시 30분경 인천 도화동 가정집에서 LPG가 폭발, 2명 중화상.

LPG통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예리하게 잘린 것으로 미루어 부부싸움을 하다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

#### 98/ 01/ 26 타이어 공장서 폭발

19시경 경남 양산시 유산동 (주)우성타이어 공장내 타이어 사이드 휠 압축과정에서 압축기가 폭발, 1명 사망.

예열과정에서 일정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압축기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일어난 사고로 추정.

#### 98/ 01/ 27 돈사에 불

9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돈사에서 불이 나 어미돼지 1백마리가 불에 타 숨지고 1시간여만에 진화.

전열기 제어상자에서 불꽃이 튀면서 보온덮개 쪽으로 불길의 번졌다는 진술에 따라 전기합선으로 인한 불로 추정.

#### 98/ 01/ 28 슈퍼마켓서 불

0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슈퍼마켓 제로마트에서 불이 나 1시간만에 진화.

환전용 금고가 열려 있던 점으로 미뤄 누군가 금고를 텅 뒤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추정.